

‘점심 콘서트’ 바쁜 현대인의 마음에 심표를 찍다

동구문화관광재단 마지막공연 성료 연주·성악·미술·댄스 등 세대공감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음악 소리를 듣고 밖에 나와봤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 도시 한복판에서 밝은 분위기의 공연이 펼쳐지는 것을 보니 금남로에 있던 80년대 암울했던 기억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최유진 해설사)

걸음을 재촉하던 직장인, 학생 및 중·장년층이 아름다운 가락에 이끌려 ‘일일 공연장’ 앞에 멈춰 선다. 잠시나마 바쁜 일상을 잊고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창현·재단)이 지난 8일 낮 12시 금남로공원 일원에서 마티네 형식으로 선보인 ‘점심 콘서트’ 현장. 객석에는 양복에 넥타이 차림을 한 직장인부터 대학교 학과 점퍼를 입은 학생까지 50여 명 관객이 자리했다.

‘마음에 점을 찍는다(點心)’는 취지에서 재단이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점심 콘서트’는 따로 시간을 내서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하기 어려운 관객을 위해 동구 명소 곳곳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미로센터 미로가든 무대에 권인혜 보컬, 조선대 밴드 음률, 성악팀 퍼스트 클래식이 출연했으며 9월 총장 우체국 앞에서 UCDC, 푸른길 공유마당에서 업시크림링 아티스트 이승규, 재즈 보컬리스트 강은영 등이 시민을 만났다.

이 외에도 금남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이나 전일빌딩 1층 로비, 여행자의 zip, 조선대 장미원 및 5·18민주광장 등에서 공연을 펼쳐왔다.

이날 라인업은 가요와 국악, 그룹사운드(밴드)



국악팀 ‘꽃가람’ 보컬 정수연(왼쪽)과 해금 문보라 씨가 ‘인연’을 들려주는 모습.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이 지난 8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공원 일대에서 ‘점심 콘서트’를 펼쳤다. 보컬리스트 서혁신이 공연하는 장면.

를 넘나드는 폭넓은 구성이었다. 대중가요를 부르는 여수 출신의 보컬리스트 서혁신과 국악 2인조 꽃가람, 전남대 밴드 동아리 선율이 금남로 공원을 음악으로 수놓았다. 사전 예약한 관객들은 런치 박스를 제공받아 ‘점심’ 콘서트를 즐기는 모습이 었다.

첫 무대는 여수에서 녹음실 비밀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보컬리스트&작곡가 서혁신이 장식했다.

그는 오석준의 곡 ‘웃어요’로 시작해 스탠다드 명곡 ‘Can’t take my eyes off you’를 불렀다. 야외 버스킹 형식의 공연답게 서 씨는 하모니카 솔로와 나팔을 불어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가지 않은 길이라 해도 손을 잡아주면 기쁨이 가득하다”는 희망찬 노랫말이 인상적인 자작곡 ‘덕분이야’도 들을 수 있었다. 관객들은 후렴구를 따라 부르거나 고개를 흔들며 호응했다.

다음으로 무대에 오른 팀은 국악그룹 ‘꽃가람’. 이들은 정아한 국악 선율과 화사한 꽃으로 치장한 모습으로 중·장년 관객을 매료시켰다. 두 사람은 이선희 ‘인연’을 비롯해 MBC 드라마 ‘역적’ OST인 ‘봄이 온다면’, 흥겨운 리듬으로 어깨를

들뺨이게 한 심은경 ‘나성에 가면’을 협연했다.

꽃가람은 “이전에도 작은 마티네 형식의 콘서트에 출연해 본 적 있지만 이번 공연은 도심 한가운데에서 시민과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었다”며 “우리의 노래로 에너지를 얻어 다시 사무실로 힘차게 돌아가는 관객을 보니 힘이 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전남대 밴드 보컬 동아리 선율이 다양한 곡들을 선보였다. 데자뷰의 ‘올리비아 로드리고’, 김정지마의 ‘기다린 만큼 더’와 자우림 곡 ‘스물다섯, 스물하나’ 등 가을 정취를 고조시키는 노래를 불렀다.

젊은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인 곡 위주로 레퍼토리를 편성, 쉽게 따라 부르도록 유도한 점은 좋았다. 80·90년대를 풍미한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등 울드 송도 포함해 길을 가던 중·장년 세대의 발걸음도 붙들었다.

한편 ‘점심 콘서트’는 한 해 동안 대중가요는 물론 플루트, 성악, 미술, 댄스, 재즈 등 다채로운 장르로 채워졌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이영실
이지연
이창희
정인선
한남순



한남순 작 ‘축제’



이지연 작 ‘화지리’

5명 여성 작가들 한자리에 ‘파워 우먼’

16일까지 이화갤러리

서로 다른 이력과 그림에 대한 철학, 지향하는 작품 세계가 다른 5명의 여성 작가들이 한자리에 서 전시를 연다.

이영실, 이지연, 이창희, 정인선, 한남순 작가가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예술의거리 이화갤러리에서 ‘파워 우먼’을 주제로 전시를 갖는다.

주제가 말해주듯 이들의 작품 창작에 대한 에너지는 넘친다. 그림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 못지않다는 방증이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 왔지만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파워풀한 열정으로 가득하다는 의미다.

각기 다른 삶과 이력은 ‘따로 또 같이’ 오묘한 조화를 이룬다. 지나온 여정은 다르지만 여전히 그림과 함께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한다.

이지연 작가의 ‘화지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연꽃의 풍경을 담았다. 시냇가 한켠에 드문 드문 핀

선홍색 연꽃은 자연의 경이와 함께 맑은 향기를 피워 올린다. 푸른 잎과 보색을 이룬 불그스름한 꽃잎은 있는 듯 없는 듯 잔잔한 울림을 선사한다. 거칠면서도 촉박한 땅에 오롯이 뿌리를 내리고 소담한 꽃을 피워낸 연의 생리에서 우리 사는 세상의 모습과 삶의 자세를 사유하게 한다.

한남순 작가의 ‘축제’는 축제의 환희를 다양한 색감으로 초점화했다. 둥근 꽃잎들이 배접되듯 서로 맞닿은 풍경은 보는 이에게 축제의 흥겨움을 전한다. 전체적인 사각형의 형상 속에 들어찬 각각의 원들이 주는 조형적인 감각도 이색적이다.

이정화 이화갤러리 대표는 “각기 다른 화풍과 그림에 대한 단상은 다르지만 5인의 여성 작가들이 펼치는 이번 전시는 색다른 개성을 느낄 수 있는 자리”라며 “작품전을 계기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받음으로써 향후 작품 활동의 전환적 동력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 소설부문 이경호 씨 최우수상

수상작 ‘해벽의 혼’ 상금 2천만원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여·순평화문학상) 최우수 수상자에 소설 부문 이경호 씨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해벽의 혼’이며 상금 2000만원이 수여됐다.

아울러 시 부문 최우수상에는 박복영 씨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형제묘의 기억’ 등 5편이며 상금 1000만원이 주어졌다.

전남도는 7일 여·순평화문학상 시상식을 열고 이경호 씨 등 수상자 6명에게 시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

여·순평화문학상은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아픔을 문학작품으로 승화하고, 여수사건의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제정됐다. 여수사건을 주제로 하는 문학상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여수시와 순천시에서 각각 실시했으나, 상의 훈격을 높이고 화합 및 여수사건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도에서 통합 운영하게 됐다.

소설 최우수상작 ‘새벽의 혼’은 소설적 구성을



이경호

잘 갖췄으며 죽음과 삶이 하나라는 노래를 잘 그린 작품이다. 시 최우수상작 ‘형제묘의 기억’ 등 5편은 여수의 비극을 서정적인 감성으로 승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소설 부문 우수상 강민정, 오연수 씨에게 500만원의 시상금과 상패가, 시 부문 우수상 박찬희, 김성신 씨에게 각각 500만원과 시상금이 수여됐다.

시상식에는 제76주기 합동추념식 추모곡 ‘부용산’과 여수사건 기록화기인 박근민 씨 작품이 어우러진 영상이 상영됐다. 최우수 수상자의 시 낭송도 펼쳐졌다.

명칭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여·순평화문학상은 여수사건의 아픔과 상흔을 문학작품으로 승화해 전국화에 기여하는 취지로 제정했다”며 “향후 화해와 상생, 평화를 상징하는 최고 문학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예술가곡 ‘아름다운 오월의 노래’

김소정 가곡집 출간 기념 음악회, 14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의 아픔을 모티브로 가곡을 창작해 온 김소정(사진)이 예술가곡집 ‘아름다운 오월의 노래’ 출간 기념 음악회를 펼친다.

김소정이 음악회 ‘Beautiful May Songs’를 오는 14일 오후 7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연다. 광주작곡가협회와 한국작곡가회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김소정 가곡 아홉 편을 감상하는 자리다.

바리톤 염종호(광주 파하모니 남성합창단 지휘)의 ‘사랑은 모닥불에 잠기고’, ‘손에 잡히지 않아 아름답다’로 이어진다. 이들은 각각 김지열, 박영애의 시에 김소정이 곡을 입혔다.

다음으로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출신이자 조선대 외래교수인 소프라노 김선희가 ‘바람의 언덕’, ‘가을 사랑’을 들려준다.

“오월 어느날 우 우 오월의 미풍이 광풍으로 / 하늘끝까지 하늘끝까지 울어리진다/ 푸르른 무등산의 깊고 낮은 울음소리/ 하이얀 분수대의 높이 높은 신음소리”(‘오월, 그날의 불꽃’ 중에서)

김소정이 쓴 시를 낭송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시낭송가 김소정과 김선희가 들려주는 ‘바닷가에서’, ‘무등산 연가’, 김효비야의 ‘오월, 그날의 불꽃-5·18 기념 박기순 열사를 기리며’가 울려 퍼진다. 작은 새와 산 그림자 등 자연 풍광을 노래하는 박원자 시 ‘그대와 돌이서’도 가곡으로 만난다.

바이올린 연주자는 광주교대에 출강 중인 임리경, 피아노는 광주오페라단 음악코치인 박지현이 맡는다. 사회에 광주문화예술대상(문학)을

수상한 시인 김정희. 김소정 박사는 이태리 가스파레 스포네티 국립음악원 최고위과정을 비롯해 불가리아 국립 소피아 아카데미와 경희대 교육대학원, 전남대 음악교육과를 졸업했다. (사)한국작곡가회 상임이사과 광주작곡가협회 부회장, 작곡회 회원, 연작회 감사와 광주문인협회 이사직 등을 역임했다.

김소정 작곡가는 “지역의 아픔 등을 주제로 틈틈이 작곡했던 ‘영혼이 깃든 작품’을 광주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감회가 깊다”며 “이번 발표자들이 음악 애호가와 전공자,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널리 향유됐으면 한다”고 했다.

전석 초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since 1982